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5년도 제7호

### [다시 정몽규 시대④]

#### ‘압승’ 선거... 이유는? “혼탁 선거판에 희미해진 개혁 동력”

김종원 스포츠월드 기자

###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 논란의 탁구 여자 국가대표 '바꿔치기의 진실'

유병철 더팩트 기자

### 공익 제보 의해 2개월간 의혹 조사 예정

#### 서울시, 시체육회 간부들 '스포츠마사지 상납 의혹' 조사 착수

박대로 뉴시스 기자

### 지방 연대 통한 '균형 발전' 콘셉트로 '경험인프라' 내세운 서울큰 격차로 제압

#### 전북, 서울에 예상 갯 압승...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종합)

최송아 연합뉴스 기자

### 유승민(43) 제42대 회장

#### 3월 들어 새롭게 바뀐 대한체육회, 인사 핵심 키워드는

박종민 한스경제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체육시민연대 2025년 정기총회 결과

안녕하세요, 체육시민연대입니다.  
지난 2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에  
2025년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 구성 변경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금 활용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정기총회 결과 및 자료는  
체육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정몽규 시대④] ‘압승’ 선거… 이유는? “혼탁 선거판에 희미해진 개혁 동력”

‘탑독’의 아성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장기 집권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는 혼탁한 선거 양상이 오히려 정 회장에게 득이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교수는 “선거의 기술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으로 흘러갈수록 기존 세력이 불리한 흐름”이라며 “정 회장이 일부러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지러운 선거판 양상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연기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문제를 잠복시키고 흐지부지한 상태로 뒀다. 그 결과, 후보들 간 상호 비난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도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이 여러 차례 펼쳐진 바 있다. 이로 인해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살펴볼 기회가 막혀버렸다는 게 핵심이다.

대안 부재가 정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후보들이 기존 체제와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표심을 흔들 매력도 없었다. 유권자들 상대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결국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조차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상황까지 왔다. 정 회장에게 표심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전장을 던진 신문선, 허정무 두 후보가 변화의 기수로 자리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두 후보 모두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을 내놓는 데에만 그쳤고,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면에선 부족했다. 선거 초반부터 이들의 한계를 간파한 대의원들이 끝끝내 안정적인 선택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과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축구협회서 새 리더십을 선보일 인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젊고 개혁적인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축구인들이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다. 김 위원장은 “축구협회는 계속해서 팬들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에 발맞춰 축구인들도 이번 선거서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표를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 대한축구협회가 불도저식 운영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기 집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바뀔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회 내부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흐름이 공고해질 것이다. 득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기존 방식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축구계 한 관계자 역시 “이번 선거 결과는 축구협회의 개혁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신호일 수 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기존 체제가 유지되면서 그 동력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 논란의 탁구 여자 국가대표 '바꿔치기의 진실'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 먼저 다소 생뚱맞지만 이번 칼럼 작성의 배경 및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졸업 후 스포츠 분야에서 글쓰기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번 기사는 쉽게 써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칼럼니스트 본인이 해당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보도가치, 팩트 전달, 언론의 역할, 양심과 용기 등을 오래 고심한 끝에 기사화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 불거진 유승민 후보(현 회장)의 탁구 국가대표(선수) 바꿔치기의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려합니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공격한다고 해도 달은 그대로 존재하는 법이니깐요.

# 핵심은 간단합니다. 해당 선수 본인도 모른 채 올림픽 대표선수가 부당하게 바꿔치기된 것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2021년 개최)을 앞두고 2021년 2월21일 광고씨름체육관에서 대한탁구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경향위, 당시 위원장 김택수)가 열렸습니다. 남녀 올림픽 대표선수를 선발하는데, 문제는 여자선수였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경향위는 전지희-신유빈-이시온을 선발했습니다(남자는 장우진-이상수-정영식).

그런데 경향위 종료 후, 김택수 위원장이 당시 광고씨름체육관에 있던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에게 보고하고는 이시온이 최효주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김택수 위원장이 경향위 위원 전체가 아닌, 일부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치기를 단행한 겁니다. 언론보도가 최효주로 나갔고, 그렇게 최효주는 그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참담했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한국 탁구는 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 국가대표, 특히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마크는 선수에게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회장이든 누구든, 개인이나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력향상위원회와 같은 특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하게 선발합니다.

한국 양궁이 올림픽 본선보다 더 까다롭다는, 치열하고 공정한 국가대표선발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입니다. 단연코 위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스포츠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들(누군가 지시하고, 누군가는 이를 실행했기에 복수로 표기)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는 짐작이 가지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선수,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선수 등의 사적 판단이 작용했을 겁니다.

# 혹시나 몰라 언급합니다. 못된 짓을 행한 이들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끄러운 변명 말입니다. 선발전 순위에서 최효주(2위)가 이시온(3위)에 앞선다는 논리는 아주 엉터리입니다. 같은 경향위는 남자 3위인 정영식을, 2위인 안재현 대신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향위가 결정한 것을 밀실논의를 거쳐, 개별 전화통화로 뒤집었다는 절차적 공정성의 훼손이죠. 경향위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회장은 경향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라고 지시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재논의 지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야 하고, 회장의 혼자 판단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체제에 비유하자면 독재나 과두정에 비견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 사건 발생 당시 즉시 알려지고 바로 잡아야 할 이 문제는 3년을 훌쩍 넘겨 지난해 10월 대한탁구협회장 선거 때 이슈화됐습니다. 많이 늦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탁구계에는 '외부로 나쁜 뉴스가 나가면 좋을 게 없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탁구인들이 권력에 약하다는 비겁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는 이런 못된 문화는 사실 유승민 회장 시절 대한탁구협회에 만연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 비판을 가하면 '내부총질자'로 왕따를 놓거나, 당근을 제시해 입틀막을 시도한 정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필자도 2023년 초 프로탁구 사무처장을 맡고 있을 때 대한태권도협회의 부당한 대표선수 선발 기사를 접하고, 위 사건을 언급하며 '탁구에서는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가 황당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계속

당시 협회 부회장으로 더 높이 올라가 있던 김택수 감독이 감독자 회의를 소집해 사무처장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징계는 없었지만 이게 프로탁구의 감독자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육계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지요? 어쨌든 탁구협회장 선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접한 필자는 '나도 비겁했다'는 자괴감이 들어 반성하고, 용기를 내 2024년 11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 문제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 2025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는 국가대표선수 바꿔치기 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을 비롯해, 후원금 인센티브 수령 등 유승민 후보의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V토론 생방송 때 강태선, 강신욱 후보가 직접 발언했습니다.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은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민주화를 위해 단식을 하고, 이후 선거에서는 강신욱 후보와 단일화를 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죠.

박 전 회장은 비슷한 시기 언론에 상세하게 유승민 후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박창범 전 회장은 "당시 중앙(서울)언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지방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모 인사로부터 기사를 내리면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와서 어렵게 부탁을 해 기사를 내리거나 축소한 바 있다"고 술회했습니다.

# 더 가관인 것은 선거일 전날인 1월 13일에 나왔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 바꿔치기'라는 용어를 쓴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태선 강신욱 후보에게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유 후보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 B 선수를 원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을 때 납득하지 못했다. 불공정한 선발이어서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관에 있는 협회장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탁구협회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도대체 회장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 회장이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면, 경향위를 다시 열지 않고 그냥 전화로 일부 경향위원에게 얘기하고 올림픽대표선수를 변경하면 되는지요? 그럼 뭐하려고 대표선발전을 하고, 경향위 논의를 하는지요? 이게 선수 바꿔치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나아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사과까지 요구하다니, 정말이지 '적반하장(賊反荷杖)' 네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궁지에 몰려 급히 내놓은 유승민 회장의 조잡한 변명을 날카로운 비판 없이 받아쓰기로 보도한 언론들의 태도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 지난 2월 24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여자 이시온 선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경향위는 해산되었음에도, 재논의 과정 없이 최효주 선수로 변경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신고인 김택수의 주장대로 경향위 위원들로부터 전화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정당했는지와 선수가 변경되는 과정에 회장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어 감사원에 이첩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중지하였다.'

3개월 넘게 윤리센터가 수십 명의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는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감사원 이첩은 추가로 취재해보니 모 탁구인이 감사원에 유승민 회장 관련 다수의 비리를 제보했고, 이중 하나가 국가대표선수 바꿔치기였기에 감사원이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 잘못을 저지른 자들의 사과나, 징계는 없습니다.

#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1월 14일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3연임에 도전한 이기흥 회장을 꺾고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우리는 체육인, 그리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회장에 당선됐으니 이런 사소한 문제는 덮어두자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혹은 이제 유승민이 대한체육회 권력을 잡았고, 국회의원 공천 제의까지 받을 정도로 정치권과도 친분이 두터우니 이 사건은 묻힐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나쁜 짓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스포츠윤리센터나 감사원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실규명과 사과 및 관계자 처벌은요? 만일 이게 정당하다면 대한체육회 산하 모든 종목이 이렇게 대표선발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게 선거과정의 네거티브 공세인가요? 선거는 원래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거 다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의도 정치도 그렇지만 낄낄이 선거로 유명한 우리네 체육계 선거는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판단은 체육인, 그리고 국민들의 몫이고, 그 결과는 우리네 민주주의 수준인 듯합니다.



# 서울시, 시체육회 간부들 '스포츠마사지 상납 의혹' 조사 착수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직원으로부터 스포츠 마사지를 무료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익 제보에 따라 향후 2개월 동안 서울시체육회 내 스포츠마사지 무료 제공 의혹을 조사한다.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가진 모 직원으로부터 수년간 무료로 마사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익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직원 A씨는 직장 상사인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사지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체육회에서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2건인데 그 중 하나가 A씨라는 게 제보 내용이다.

이에 관해 김혜영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직원 A씨는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수년간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장 내 상사들에게 무료로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뇌물 내지 향응 제공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12월 김 의원이 서울시체육회를 방문했을 당시 체육회는 이를 일부 인정했다.

김 의원은 방문 후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근무 시간에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직원을 통해 몇 차례 스포츠 마사지를 제공 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전북, 서울에 예상 갯 압승...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종합)

전라북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전북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꺾었다. 무효표는 1표였다.

이로써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48년 만의 하계 올림픽을 열기 위한 도전에 나서게 됐다.

'국가 균형 발전'을 주장하며 '지방 도시 연대'를 내세웠던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성공 개최 경험과 각종 인프라의 장점을 부각한 서울에 큰 격차로 압승했다.

투표에 앞서 현장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서 각각 45분간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각 후보지의 PT 이후엔 15분씩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어 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 후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한 곳의 후보지를 정했다.

전라북도는 최근 올림픽 유치 도시들의 콘셉트인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 초점을 맞춰 표심을 끌었다.

올림픽을 유치하면 육상 경기를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하고, 광주(국제양궁장·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충남 홍성(충남 국제테니스장), 충북 청주(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전남 고흥(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에서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향하는 인접 도시 연대를 통한 비용 절감 요구에 부합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경제력의 분산으로 균형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4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무주를 내세웠으나 경쟁을 벌인 강원도 평창에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자리를 내줬던 전북은 당시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냈다.

김관영 지사는 PT에서 "우리나라 전국단위 스포츠 경기의 88.5%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호주가 세 차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으로 옮겨가면서 한 것도 나라의 균형 발전을 꾀한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스포츠 시설은 물론 교통·숙박 등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쟁력을 부각했으나 전북에 예상 밖의 큰 표 차로 밀렸다.

2019년 부산시를 따돌리고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 선정된 뒤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했으나 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던 서울은 또 한 번 올림픽 유치전에서 쓴맛을 봤다.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대한체육회와 유치신청 도시 협약서를 체결한 전북은 이제 다른 국가의 도전 도시와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다.

2036년 하계 올림픽에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인도(도시 미정), 칠레(산티아고) 등이 유치 의사를 드러냈다.

과거 올림픽 개최지는 7년 전 총회에서 결정했으나 IOC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 사실상 상시 협상 체제를 도입했다.

다음 달 차기 위원장 선거와 6월 취임을 앞둔 IOC는 2036년 개최지 선정이 올해 이후 이뤄질 거로 예상된다는 정도로만 계획을 밝히고 있다.

# 3월 들어 새롭게 바뀐 대한체육회, 인사 핵심 키워드는

대한체육회가 3월 들어 마침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났다. 대한체육회는 유승민(43) 제42대 회장이 지난달 28일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1일부로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직제 개편과 함께 부장급 이상 인사가 이뤄졌다.

‘능력’과 ‘젊은 감각’이 핵심 키워드다. 우선 사무총장을 보좌해 대한체육회 살림살이를 맡을 사무부총장에 신동광 훈련본부장을 앉혔다.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의 재정 능력에 힘을 실기 위해 회장 직속으로 신설한 마케팅실 실장에는 마케팅 파트에서 능력을 발휘한 오지윤 전 스포츠마케팅사업단 단장이 선임됐다. 김보영 신임 기획조정본부장은 대한체육회 사상 여성으로는 최초로 기획·총괄 사령탑에 올랐다.

이번 부장급 이상 인사에선 김보영 본부장을 포함해 여성 13명이 간부로 뽑혔다. 부장에는 최연소인 39세의 권휴진 예산부장을 비롯해 1980년대생 무려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회장은 취임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케팅실의 경우 제 직속으로 뒀는데,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받는 제약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하려고 한다. 다양한 종목, 선수, 지도자, 지방 체육회에 재분배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스포츠 모델이 나오고 체육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유승민 회장은 "선수촌에서도 두루뭉술한 직제보다는 선수와 지도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직제를 통해 세밀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다양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내실을 다지고 외연도 넓히는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인천 남동구, 2025년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302010000121>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공식 취임... "협력하고 경청해 현안 풀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104100007?input=1195m>

HAPPY700평창 전국 생활체육 스키대회 개최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22811342595366>

유도 이현지 등 3명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9375&ref=A>

체육회, 2028년 완공 목표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 본격화

<http://yna.co.kr/view/AKR20250301038200007?input=1195m>

체육회, IOC선수위원 후보로 봅슬레이 원윤종 낙점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184573.html](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184573.html)

SK슈가글라이더즈, 대한체육회 체육상 '스포츠 가치' 최우수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027100003?input=1195m>

헬스장 8곳 중 1곳 가격표시제 미이행...과태료 등 조치 검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5887](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5887)

북한, 백두산 지구 선전... "체육 관광 명소"

<https://www.news1.kr/photos/7158372>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